

전남에 농림어가 많은데...상생기금 지원 ‘찬밥’

전국 인구 14.2% 차지...지원 비중 2.7%에 그쳐
1인당 1만8379원에 불과, 강원지역과 9.2배 격차
출연기업 ‘지정기금’ 편중...“공정한 배분 개선을”

전남지역이 전국 농림어가 인구의 14.2%를 차지하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지원 비중은 2.7%에 그쳐 기금 배분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어가 인구 1인당 누적 지원액은 1만8379원으로 강원지역과 9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농어업 인구와 피해 규모를

반영한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남에 지원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74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지원액 (2740억3000만원) 의 2.7%에 해당 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 지원받은 사업은 108개로 전국 1234개의 8.8%를 차지했다. 반면 지원액 비교에 사용된 전남의 농림어가 인구 (지남해 기준) 는 농가 33만 5169명, 어가 3만1161명, 임가 3만6855명 등 총 40만3185명이다. 전국 농림어가 인구 284만7896명의 14.2%에 달하지만 기금 지원 비중은 이에 크게 못 미쳤다. 전남의 누적 지원액을 농림어가 인구로 나눈 1인당 지원액은 1만8379원이었다. 농림어가 인구 규모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셈이다.

반면, 강원은 농림어가 인구가 18만 1567명으로 전남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지원액은 308억원으로 전남의 4배를 넘었다. 전국 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2%였다. 이에 따라 강원 1인당 지원액은 16만9634원으로 전남의 약 9.2배에 달했다. 충남 역시 농림어가 인구 30만 3333명에 372억1000만원을 지원받아 1인당 지원액이 12만2670원으로 전남의 약 6.7배였다. 전남과 전북을 합쳐도 상황은 비슷했다. 양 지역의 농림어가 인구는 63만8361명으로 전국의 22.4%를 차지했지만, 지원액은 141억3000만원으로 전국의 5.2%에

그쳤다. 1인당 누적 지원액은 2만2135원이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농림어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원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으면서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불균형의 원인으로 출연기업이 지원 지역과 용도를 직접 결정하는 ‘지정기금’ 중심의 집행 구조를 지적했다. 용도별 기금 집행액 2740억3300만원 가운데 지정기금은 2637억7500만원으로 96.3%를 차지했다. 비지정기금은 102

억5800만원에 그쳤다. 출연기업이 본사나 공장·발전소 등이 있는 연고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 인구와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고려한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민이 가장 많은 지역에 1인당 1만원대의 푼돈 지원이 이뤄지는 ‘기금의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지정기금 비중을 확대하고 각 지자체의 농림어가 인구 비중과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공정 배분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신세계, 무화과 디저트 판매
키친205·모찌트리 등 케이크

제철 무화과를 활용한 디저트가 광주신세계에 등장했다. (좌)광주신세계는 본관 지하 1층에서 키친205와 엘리제 드 궁전, 모찌트리 등 디저트 브랜드를 통해 무화과를 활용한 케이크와 모찌 등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무화과는 9~10월이 제철로, 이 시기에 당도와 식감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신세계는 연휴 기간 아이와 나들이를 준비하는 고객들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디저트로 제철 무화과 제품을 추천하고 있다.

대표 상품은 딸기발 케이크로 알려진 키친205의 ‘무화과발 케이크’다. 무화과발 케이크는 케이크 겔면뿐 아니라 내부에도 무화과 과육을 넣어 무화과의 식감과 맛을 살린 제품이다. 무화과가 제철인 10월까지 한정 판매된다. ‘무화과발 미니’와 ‘무화과발 케이크 1호’는 각각 3만5000원, 4만8000원에 판매된다.

같은 층에 위치한 엘리제 드 궁전에서 는 무화과 생크림케이크를 판매한다. 엘리제 드 궁전은 궁전제과가 선보인 프리미엄 케이크 전문 브랜드로, 동물성 생크림과 생과일을 활용한 조각케이크와 롤케이크 등을 선보이고 있다. 무화과 조각케이크는 9000원, 롤케이크는 4만2000원이다.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는 모찌트리의 무화과 모찌가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주신세계가 제철 무화과를 활용한 디저트를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모찌트리 매장에서 여직원이 무화과모찌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다.

소진공, 홈페이지 피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유예

기존 정책자금 대출 만기 12개월 연장...유예기간 이지만 납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홈페이지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기존 정책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소진공은 홈페이지 피해 임점업체와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현재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을 상환하고 있거나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대출 만기를 12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유예 기간에는 원금 상환 없이 이지만 납부하면 된다. 소진공은 앞서 홈페이지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시적경영예보자금’을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해 왔다. 해당 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0.5%포인트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신규 자금 지원에 이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부담까지 낮추기 위

한 것으로, 피해 소상공인이 영업을 유지하면서 경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신청은 6일 오후 2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직접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누리집에서 신청한 뒤 재약정을 체결하면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대리대출 이용자는 누리집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기간을 연장한 뒤 금융기관을 방문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윤용성 기자 yo1404@

‘속옷도 가성비’ 롯데마트, 균일가 언더웨어 선보여

생활필수품 가격 부담 낮춰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속옷 등 생활필수품 상품에서도 가격 부담을 낮춘 ‘가성비 소비’가 확산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 1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균일가 언더웨어 7종을 판매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여성 심리스 브라와 남성 드로즈 등 일상에서 자주 교체하는 언더웨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별도의 탑 증정이나 카드 할인 행사 없이 상품 자체 가격을 균일하게 책정해 구매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롯데마트의 언더웨어 상품군 매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9월 누계 기준 언더웨어 상품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 증가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가격이 민감한 소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속옷 역시 품질과 실용성뿐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2.5% 올랐다. 롯데마트는 이번 언더웨어 신상품을 일상에서 자주 착용하고 교체하는 생활필수품 상품 중심으로 구성했다. 여성 심리스



브라는 아계형과 끈형 등 두 가지 스타일로 선보였으며, 와이어가 없는 디자인과 신축성 있는 소재를 적용했다. 남성 드로즈는 아웃밴드 스타일로, 헤드 남성 트렁크는 면 소재와 체크 패턴을 적용해 기본적인 디자인과 소재감을 살렸다. 이와 함께 자체브랜드(PB) ‘오늘좋은’ 의류 상품도 확대하고 있다. ‘오늘좋은X비비안 워밍 터틀넥’을 비롯해 환절기와 겨울철을 겨냥한 내의세트, 남성 반팔런닝, 여성 면스판 브라런닝 등을 선보이고 있다. 이정수 롯데마트·슈퍼 언더잡박스포츠팀 MD는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매일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에서도 가격 부담을 낮춘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실질적인 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을 갖춘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초대석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생산비조자 보전 어려운 농업
‘구조적 한계’ 돌파해야”

초대석



안도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위원장
“전남광주 대전환 기회
경제 대도약 열어나갈 터”

전통에 현대를 더하다



홍윤진 루트머지(주) 대표
“전통에 현대 더해
지역 문화유산 콘텐츠로”

시대공감



윤형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납규정 도시재생과장
“도시를 바꾸는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



노래 흐르는 거리, 꽃으로 물든 강변
남도의 가을이 깊어진다



당일치기 영안여행
문화유산이 있는
호남 대표 명촌에서 머물다

2026.10 vol. 161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커버스토리

임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인문도시를 넘어
AI 경제도시로 대전환 총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미래 다시 그린다

인구증가·인문도시·문화관광 등 성장 토대
민생 중심 행정...AI 헬스케어 미래 동력 육성
노포 맛집 발굴 등 원도심 살권 활성화 박차